

# 「新訂字藪」考

—朝鮮朝 字譜考 其二—

尹 炳 泰\*

## 目 次

- |             |             |
|-------------|-------------|
| I. 序 言      | V. 字 數      |
| II. 文獻上的 記錄 | VI. 多鑄順의 調査 |
| III. 體裁와 內容 | VII. 避諱의 調査 |
| IV. 成 立     | VIII. 結 言   |

## I. 序 言

이 研究는 朝鮮朝 官鑄·雕造活字의 字譜에 관한 一連의 研究中 《生生字譜》에 이어 두번째로 發表하는 것이다. (1)

우리 民族의 자랑인 金屬活字의 發明과 그 使用에 관한 研究는 일찍부터 여러 先學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史料나 實物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官鑄·雕造活字와 그 印出本에 관한 研究는 더욱 活潑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研究 역시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資料를 充分하게 活用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斷言하기는 이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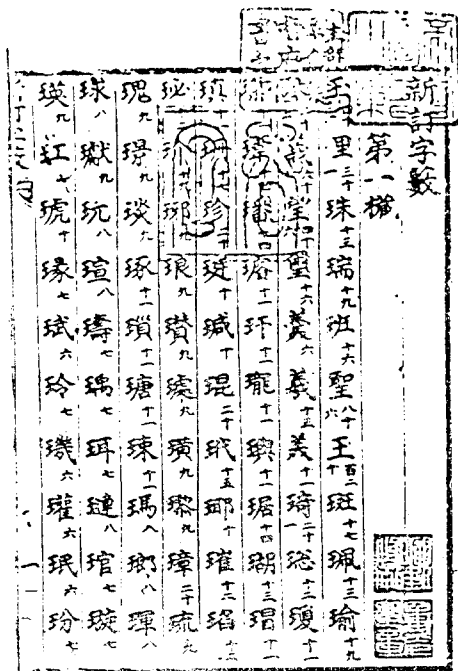
여기서 다루려는 《新訂字藪》 또한 壬辰字를 研究하는데 꼭 다루어졌어야 할 資料임에도 不拘하고, 壬辰字를 研究한 어느 先學의 論文에서도 引用된 일이 없는 資料의 하나이다.

이 研究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에 있는 《新訂字藪》에 대한 過去의 記錄을 살펴보며, 그 物理的 形態와 內容을 알아 보고, 또 그 成立과 鑄造된 字數 및 多鑄順의 차례를 調査하며 避諱의 現象까지도 알아 보려는 것이다.

\* 慶北大學校 文理科大學 圖書館學科

(1) 尹炳泰, 「生生字譜」와 生生字, 『남산도서관보』 제45호 (1975. 11), pp. 35—48.

II. 文獻上的 記錄



第1圖 新訂字數 1.1A

서 여러번 行한 展示會中, 昭和 6年(1931) 10月에 行한 展示會의 目錄인 《朝鮮活字印刷資料展觀目錄》에서 “二·活字·組版·印刷用具類”에 包含시켜

二九 新訂字數 寫本 一冊 本學藏

正祖壬辰에 加鑄하고 旁字分類하여 七編에 넣어진 活字를 記載함, 大字는 舊三萬四千八百四十八字, 新六萬七千四百七十八字, 合하여 十萬二千三百二十六字로 하고, 또 小字는 舊三萬九千五百八十二字, 新八百五十九字 合하여 四萬四

文獻上에서 《新訂字數》를 처음으로 言及한 것은 寡見의 탓인지는 몰라도 《西序書目》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西序書目》의 掌故類에서

新增字數一本(考工) 內閣編印(2)

이라하여, 《新訂字數》의 “訂”을 “增”으로 記錄하였다.

다음에 一般的으로 알려져 계 된 것은 《增補文獻備考》의 藝文考五(字書類)에서

新訂字數一卷(3)

이라하여 收錄된 다음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新訂字數》가 우리나라 活字印刷의 資料로 알려진 것은,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에

(2) 西序書目(寫本) 서울大學校圖書館藏, 1.28 A.

(3) 增補文獻備考, 弘文館 纂輯 校正(서울: 亞細亞文化社, 1972, 影印本), p. 57 下.

百四十一字 있음을 나타냄. <sup>(4)</sup> (筆者譯)

이라 記錄한 이후의 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解說者는 “英祖壬辰”을 “正祖壬辰”으로 誤記하고 있다.

이 展示目錄과는 달리 前問恭作는 《古鮮冊譜》에서 “字藪”에 包含시켜

#### 新訂字藪

이는 唐字의 字藪로서 新增字藪의 改訂 唐字藪에 앞선 編本일까.

新訂字藪 一冊(奎章閣藏書目錄)

新訂字藪一卷(藪는 數로 틀림)

(增補備考二四六卷三十四丁 字書新增)

新訂字藪 一冊 寫本(督府大正十年目錄)<sup>(5)</sup>

라 하고, 또 《新增字藪》에 대하여는 따로

新增字藪 一本 內閣編本(西序書目草本 史 掌故)

新增字藪 一本 徐命濟(西序書目 經 六書)

新增字藪 一卷 本朝內閣編次(摛文院書目 常板 史 掌故)

最初의 책으로서 乾隆末에 編하고 活字로서 印行한 것으로 보인다. <sup>(6)</sup>

라 紹介하고 있다. 여기에서 前問恭作는 “增”과 “訂”이 잘못 記載된 것을 各各 다른 책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또 《新增字藪》는 印刷되었을 可能性을 미치고 있다. 한편 《新訂字藪》에 대하여는 그것이 芸閣印書體字의 字譜인 《芸閣唐字藪》의 前身으로 誤認하고 있다.

朝鮮總督府에서 여러번 刊行한 《朝鮮圖書解題》에서는 京城帝大의 展示目錄의 誤謬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sup>(7)</sup> 이 《朝鮮圖書解題》의 “正祖壬辰”을 “英祖壬辰”으로 고친 것이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에서 編纂한 《韓國圖書解題》이다. <sup>(8)</sup>

以上과 같이 《新訂字藪》에 대하여 여러번 다루어진 바 있었지만, 이에 대한 正確한 檢討가 이루어진 일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이 《新訂字藪》의 實物을 再檢討하여야 할 必要가 생긴다.

(4)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朝鮮活字印刷資料展觀目錄(京城:同館, 昭和6(1931)), p.6.

(5) 前問恭作 編, 古鮮冊譜(東京:東洋文庫, 昭和31(1956)), 第二冊, p.956.

(6) 上掲書, p.955.

(7) 朝鮮總督府 編, 朝鮮圖書解題(京城:朝鮮通信社, 昭和7(1932)), p.299.

(8)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圖書解題(서울:高大 民族文化研究所 出版部, 1971), p.321.

### Ⅲ. 體裁와 內容

지금부터 詳論할 《新訂字藪》는 위의 言及에서 진작하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와 같이, 現在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에 保管中인 奎章閣圖書中の 하나이며 寫本 1冊으로, 그 請求記號는 奎7928이다.

이 책은 일찍부터 整理되어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에 收錄되어 있다.<sup>(9)</sup> 그 形態를 보면, 表紙는 黃色으로 裝潢되어 있고, 五針眼으로 綴해진 線裝方冊이다. 表紙上에는 「新訂字藪」라는 書名이 墨書되어 있으며, 그 크기는 세로가 33.5cm 이고 가로가 22.2cm 이다. 그 첫張의 界板 版式은

四周單邊. 半葉匡廓: 24.8×15.7cm. 有界. 10行, 行間 20字 (大字는 各10字, 大字사이에 小字 2字 雙行으로) 版心: 「新訂字藪」上 花紋魚尾 (四弁, 單線, 單絲) 〈張次〉單線, 下白口.

이다. 이 책의 本文과 版心題 그리고 張次는 모두 墨書되어 있다. 이 첫張의 中央에는 「春宮」이라는 陽刻篆書體의 큰 方形朱印이 찍혀 있고, 第1行과 第2行에 걸쳐 아래로부터 「重光之章, 觀物軒」이라는 陰刻篆書體의 작은 方形黑褐色印이 찍혀 있다. 그리고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이라는 두개의 方形朱印이 卷首題의 上端을 덮고, 欄上에 걸쳐 찍혀 있다.

이 책 第1面の 卷首題는 「新訂字藪」이다. 卷首題 다음에는 「第一櫛」이라 하여 收藏된 櫛次를 적었고, 다음 부터는 部別로 나누어져 있다.

部の 名稱은 邊欄의 上部에 單行 2字로 「玉部, 金部」 등과 같이 記錄되어 있어 눈에 띄우게 하고 있다.

各部 아래에 있는 여러 字의 차례는 劃數의 順 或은 字數를 많이 鑄造한 順도 아니다. 每字의 아래에는 小字 雙行 2字로 鑄造한 字의 數量을 적어 놓고 있다.

이 部別이 끝나는 곳에는 上端은 비우고, 下端에 鑄字한 部別의 總鑄字數를

以上共一千七百十四字

와 같이 小字 雙行으로 적어 놓고 있다. 그리고 每櫛의 마지막에서, 그 櫛마

(9)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奎章閣圖書韓國本總目錄 ([서울]: 同校 文理科大學 附設 東亞文化研究所, 1965), p. 492.

다 收藪된 活字數를 적어놓고 있으니, 槩數는 모두 七槩이다. 槩別로 그 活字數를 적어보면

- 第一槩 以上總計 一萬四千二百九十六字.  
 第二槩 以上總計 一萬三千七百十五字.  
 第三槩 以上總計 一萬七千五十五字.  
 第四槩 以上總計 一萬二千五百九十二字.  
 第五槩 以上總計 一萬五千七百六十一字.  
 第六槩 以上總計 一萬六千六百六十六字.  
 第七槩 以上總計 一萬二千二百九十一字.

와 같다.

이러한 《新訂字藪》의 字譜 本文이 第1張 앞面부터 始作하여, 第55張 뒷面 第4行에서 끝나고 있다.

이 字譜의 槩別로 保存한 部의 차례는 반드시 《全韻玉篇》<sup>(10)</sup>이나 《奎章全韻》<sup>(11)</sup>의 順에 따르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字譜의 本文이 끝나는 第55張 뒷面 第5行부터

七槩鑄字  $\left\{ \begin{array}{l} \text{舊三萬四千八百四十八字} \\ \text{新六萬七千四百七十八字} \end{array} \right.$   
 凡十萬二千三百二十六字  
 小字  $\left\{ \begin{array}{l} \text{舊三萬九千五百八十二字} \\ \text{新八百五十九字} \end{array} \right.$   
 凡四萬四百四十一字

라 하여 具體的으로 글자의 總數와 鑄成한 新·舊, 大·小字의 總數를 밝혀 놓고 있다. 이 本文의 마지막 張인 第56張에는 鑄字에 關係되는 人物에 관한 記錄이 있으니,

監董

通訓大夫行校書館校理白師敏

司准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趙光益

禦侮將軍行忠武衛副司勇高時俊

(10) 全韻玉篇 (奎章閣, 正祖14(1790), 木板本)

(11) 奎章全韻, 正祖 命編 (寫字所, 純祖4 (1804) 內賜, 木板本)

6 도서관학 논집

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金禹鉉

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勇金信行

書吏 李錫禧

丁致厚

李廷亮

諸員 吳彥基

柳東蒼

庫直 李載華

刻手 南泰白

劉道昌

李萬春

田得春

銷鑪匠徐福先

金瓊環

嚴德升

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이렇게 56張의 本文이 끝난 다음에 같은 同一人의 筆體로 쓴 陽村 權近의 癸未字 <鑄字跋>, 春亭 卞季良의 庚子字 <鑄字跋>, 金鑰의 甲寅字 <鑄字跋> 이 있다.

이러한 <鑄字跋>들은 張次를 새로이 始作하여 第3張 뒷面 第7行에서 끝나고 있으며, 곧 이어서 保晚齋 徐命膺의 <重鑄四書輯釋叙>가 끝張인 第5張 뒷면까지에 收錄되어 있다. 이 叙야 말로 壬辰字의 鑄字事實을 記錄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런 故로 그 重要한 內容만 抄記하여 보면,

重鑄四書輯釋叙

(略) 四書之有小註荆自新安倪氏輯釋至 皇明推演輯釋以爲大全然後大全遂盛行於世 幾乎家藏人蓄而輯釋一書頃乃沈淪隱晦學者往往不知其名何也<臣>嘗得 世宗朝印本輯釋而讀之其言約故其思易其思易故其義明類非大全汗漫之比矣後考明儒 薛瑄當大全新刊之時已厭其支離而乃獨眷眷於輯釋<臣>於是益信輯釋不可無於斯世 也今年夏我

聖上以芸閣所藏鑄字即

世宗朝鑿造之文物而散軼詞缺今不能印一卷書爲可惜也 命芸閣重加範鑄閱三月盡鈔府而止焉將印一部成書以試其字體咸曰 世宗朝後始備之鑄字當印

世宗朝時尊閣之輯釋也乃就輯釋凡其約說章圖通攷通義等 後人之所附益者並皆刪去但  
取倪氏原本鐫印廣布以爲大全之體繼(略)

王猷則我

聖上壽考作人之功未必非是書爲之助也

皇明崇禎紀元後三壬辰抄秋正憲大夫原任議政府左叅贊兼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  
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 世孫右賓客<臣>徐命膺拜手稽首謹叙<sup>(12)</sup>

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叙>를 쓴 崇禎紀元後三壬辰 즉 英祖48年 壬辰  
(1772)의 여름부터 芸閣에서 鑄造하기 시작하여 3個月만에야 重加鑄가 끝난  
것을 알 수 있다. 叙를 쓴 달이 抄秋이니 이는 바로 7月임을 밝힌 것이다.  
이 7월에 3個月만에 鑄造가 끝났다고 하였으니, 이보다 3個月 앞선 여름을  
생각하자면 4月을 連想할 수가 있다. 그러나 活字를 鑄成하는 일은 그때보  
다 보름前에 이미 始作하였던 모양이니 英祖48年壬辰 3月15日 庚戌의 《實  
錄》記事를 보면

上御集慶堂藥房入診 使大提學徐命膺 考應製詩被選人 各賜紙華墨有差 上因命膺  
所奏 命自本館看檢鑄成活字事<sup>(13)</sup>

라는 記錄이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記錄들은 壬辰字를 研究한 先學의 研  
究에서는 전혀 다루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런 面에서도 徐命膺의 叙와 實  
錄의 記事는 壬辰字의 事實上 始鑄한 달을 알려주는 重要한 資料라 할 수  
있겠다.

以上과 같은 形態와 內容의 考察에 이어 알아 내어야 한 問題는 이 《新訂  
字藪》의 編者와 이 책이 編纂되어 成立한 事實을 밝혀내는 일이다.

#### Ⅳ. 成 立

이 《新訂字藪》의 第1張 中央에 적혀 있는 「春宮」이라는 印記는 正祖가 東  
宮 즉 王世孫으로 있을 때 찍은 것이다. 따라서 이 《新訂字藪》를 編纂하여  
淨書하고 成冊한 것은 正祖가 東宮으로 있었을 때라고 짐작할 수가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資料가 몇가지 더 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들 수

(12) 徐命膺, 保晚齋集(憲宗4(1883)跋, 木活字本), 卷第七 1.22 B~23B에 <重鐫四書輯釋序>라 하  
여 同文이 실려 있다.

(13) 實錄, 44, p.416上. 英祖48年壬辰 3月15日庚戌.

있는 것은 이 책의 만지막에 붙어 있는 徐命膺이 쓴 〈重鐫四書輯釋叙〉의 날자이다. 우선 그 날자부터 보면 前述한 바와 같이 英祖48年(1772) 7월을 뜻한다. 保晚齋 徐命膺은 그의 文集인 《保晚齋集》에 있는 自表에 「肅宗丙申五月二日生」<sup>(14)</sup>이라 한 것 같이 肅宗42年(1716)에 나서, 正祖11年(1787) 12月20日 癸丑에 奉朝賀로 돌아간<sup>(15)</sup> 사람이다. 따라서 그의 生存時의 壬辰年은 正祖가 東宮으로 있었던 해와 符合한다.

다른 두가지 根據는 監董官인 校書館校理 白師敏과 書吏인 丁致厚에 관한 記錄이다.

白師敏은 《國朝榜目》<sup>(16)</sup>의 記錄에 의하면 本貫은 水原이며, 字는 士行이요, 父는 尚瑩이요, 英祖9年 癸丑(1733)에 나서, 安山에 居住하다가 英祖45年 己丑(1769) 上候平復慶科庭試에 丙科 第14人으로 合格한 사람으로, 그 해는 이 책이 이루어진 3年前의 일이다.

한편 書吏인 丁致厚에 대한 자세한 傳記資料는 알려지지 아니하였지만 正祖元年丁酉(1777)에 平壤에서 丁酉字를 鑄造할 때에 丁致厚가 또 다시 動員되었던 일이 있다. 그것은 丁酉字의 字譜인 《奎章字藪》末尾에 있는 監董한 사람들의 名單 속에

唱準 丁致厚<sup>(17)</sup>

로 記錄되어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이때가 1777年이니 壬辰字를 鑄造한 해인 1772年の 5年後의 일이다.

위와 같은 根據에 의하여, 이 《新訂字藪》가 이루어진 것은 아담도 英祖48年(1772) 7月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이 字譜의 編纂을 命한 것은 東宮으로 있던 正祖로 생각되며, 直接編纂의 일을 본 것은 徐命膺으로 생각된다. 그 理由는

첫째 〈重鐫四書輯釋叙〉를 지은이가 徐命膺이며,

둘째 이 《新訂字藪》를 쓴 글자의 字體가 徐命膺이 쓴 著作의 稿本인 《保晚齋叢書》<sup>(18)</sup>의 凡例나 本文의 字體와 너무나 닮았다는 事實이다. (第2圖參照) 勿論 이에 대하여는 徐命膺의 親筆이기 보담은 書吏인 李錫禧·丁致厚

(14) 徐命膺, 前掲書, 卷第十二 l. 8A~9B, 〈自表〉

(15) 實錄, 45, p. 680下左, 正祖11年 丁未 12月20日(癸丑)「奉朝賀徐命膺卒」

(16) 國朝榜目(寫本)〈英祖四十五年己丑 上候平復慶科庭試〉

(17) 奎章字藪(寫本), l. 64 奎章閣藏.

(18) 徐命膺, 保晚齋叢書, 徐浩修·徐瑩修 同校, 徐有本·徐有梁 同閱.(稿本)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藏 (E2-A1)



保晚齋叢書凡例

一古人編書必有所以主宰綱紀之者易之主宰綱紀則陰陽是已書之主宰綱紀則道法是已詩之主宰綱紀則性情是已禮之主宰綱紀則恭讓是已是書凡十有三種雖各自爲一書門戶殊別狀皆以先天爲之主宰綱紀故以先天四演冠于首先天一本也十有二種萬殊也一本貫于萬殊故先天冠于十有二種

一書分四目曰經曰史曰子曰集曰類書曰因唐四庫漢魏叢書等目錄參互潤色狀其

第2圖 保晚齋叢書 凡例

· 李廷亮의 筆蹟이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이와 같은 사실 역시 증명할 수 있는 間接資料가 더 나타나야만 斷言할 수가 있겠다.

셋째로 正祖와 徐命膺과의 關係이다. 이는 壬辰字가 이루어진 英祖48年(1772)보다 5年後인 正祖1年(1777) 8月 3日에 이루어진 丁酉字의 鑄成이, 당시 平安道觀察使였던 徐命膺에게 命하여 加鑄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아서도 徐命膺이 이 《新訂字數》를 直接 編纂하였을 것을 짐작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V. 字 數

이 字譜를 配列한 順序는 앞서 잠간 言及한 것과 같이 特異하다. 이제 이 字譜의 檢別 部順과 部別 字數 및 鑄字數를 알아 보자, 이는 앞으로 繼續 究明되어야 할 다른 字譜들에 대한 基本的인 資料로도 必要한 까닭이다.

第一橫	10部 字, 摠計 14,296字.	見部	24字, 共 418字
玉部	180字, 共 1,714字	示部	7字, 共 188字
人部	379字, 共 4,726字	耳部	23字, 共 538字
土部	203字, 共 2,384字	臣部	8字, 共 808字,
女部	182字, 共 1,634字	第二橫	17部 字, 摠計 13,715字
卩部(右)	115字, 共 1,096字	口部	354字, 共 3,894字
田部	66字, 共 793字	月部	223字, 共 1,796字

10 도서관학 논집

丩部	265字, 共 1,757字	瓜部	10字, 共 54字
心部	105字, 共 1,489字	片部	22字, 共 284字
足部	122字, 共 765字	第四櫛	9部 字, 總計 12,592字
方部	26字, 共 258字	水部	506字, 共 4,368字
彡部	48字, 共 290字	竹部	181字, 共 1,126字
豆部	11字, 共 135字	草部	428字, 共 3,434字
頁部	77字, 共 173字	立部	37字, 共 536字
目部	98字, 共 766字	皿部	49字, 共 600字
欠部	40字, 共 384字	米部	50字, 共 522字
骨部	31字, 共 180字	西部	58字, 共 534字
力部	46字, 共 542字	革部	68字, 共 336字
弓部	37字, 共 331字	刀部	82字, 共 1,136字
耒部	13字, 共 94字	第五櫛	23部 字, 總計 15,761字
身部	13字, 共 153字	日部	86字, 共 1,730字
心部	6字, 共 205字	雨部	72字, 共 563字
第三櫛	17部 字, 總計 17,055字	臼部	54字, 共 802字
言部	255字, 共 3,433字	广部	100字, 共 1,309字
木部	399字, 共 2,445字	山部	177字, 共 1,281字
禾部	117字, 共 869字	火部	143字, 共 1,004字
宀部	97字, 共 1,737字	鹿部	21字, 共 183字
辵部	155字, 共 2,116字	犬部	104字, 共 759字
彳部	61字, 共 1,193字	豕部	46字, 共 364字
門部	69字, 共 798字	文部	84字, 共 1,579字
疒部	117字, 共 583字	石部	147字, 共 692字
木部	83字, 共 915字	牛部	41字, 共 420字
尸部	37字, 共 361字	車部	110字, 共 826字
夕部	51字, 共 690字	黑部	70字, 共 1,126字
穴部	63字, 共 483字	馬部	116字, 共 800字
走部	29字, 共 250字	冫部(左)	103字, 共 1,257字
食部	95字, 共 672字	彡部	13字, 共 199字
戶部	19字, 共 151字	舟部	47字, 共 230字

鬼部	13字, 共	152字	乳部	18字, 共	404字
鼠部	9字, 共	59字	巾部	70字, 共	688字
缶部	14字, 共	117字	羽部	38字, 共	338字
韋部	19字, 共	145字	隹部	25字, 共	393字
風部	31字, 共	168字	殳部	22字, 共	209字
第六櫛	22部 字, 總計	16,616字	口部	52字, 共	767字
白部	39字, 共	569字	鳥部	141字, 共	670字
ㄷ部	37字, 共	438字	虫部	206字, 共	997字
衣部	219字, 共	2,083字	第七櫛	11部 字, 總計	12,291字
糸部	268字, 共	2,285字	金部	228字, 共	1,546字
酉部	84字, 共	491字	才部	322字, 共	2,255字
貝部	82字, 共	893字	十部	85字, 共	1,954字
大部	43字, 共	895字	之部	92字, 共	3,578字
矢部	11字, 共	191字	乙部	86字, 共	1,676字
丿部	88字, 共	2,396字	寸部	13字, 共	102字
羊部	16字, 共	117字	手部	22字, 共	221字
子部	20字, 共	479字	齒部	23字, 共	110字
斤部	11字, 共	182字	魚部	80字, 共	368字
角部	24字, 共	163字	瓦部	31字, 共	241字
戈部	53字, 共	968字	毛部	22字, 共	140字

이와 같은 字譜의 配列을 《明文新玉篇》<sup>(19)</sup>과 嚴密하게 對照하여 보면 部內에서의 글자 羅列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部사이의 混同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第一櫛에서는

示部가 第六櫛의 示部와 分離되어 있고,

臣部에 一·二·三·四·五·六 등의 數字가 들어 있으며,

第二櫛에서는

丩部와 心部가 分離되었고,

ㄸ部는 特異하게 別設되어 있으며,

第三櫛에서는

(19) 金赫濟 編, 國漢 明文新玉篇 (서울: 明文堂, 1967)

血部속에 血部가 숨쳐져 있고,  
第四段에서는

西部 속에 四部가 숨쳐져 있다.  
第五段에서는

广部속에 广部가 숨쳐져 있고,  
豕部속에 豕部가 숨쳐져 있고,  
文部속에 又·皮·爻·支部등이 숨쳐져 있고,  
黑部속에 灬部가 숨쳐지고, 火部와 分離되어 있으며,  
第六段에서는

白部속에 鼻部가 숨쳐져 있고,  
衣部속에 衤部가 숨쳐져 있고,  
亅部속에 干·卜·巾部등이 包含되어 있으며,  
乳部가 特設되어, 그 속에 龜·龍·虎·隹部등 여러가지가 包含되어 있  
고,

匚部속에 匚部가 숨쳐져 있고,  
第七段에서는

十部속에 母·工部와 〇 등 여러가지가 섞여 있고,  
之部가 特設되어 入部 등 여러가지가 섞여 있으며,  
乙部속에 儿·几部 등 여러가지가 섞여 있고,  
才部와 手部가 分離되어 있다.

## Ⅱ. 多鑄順의 調査

이 『韻字源』의 글자마다 그 아래에 註記되어 있는 數字는 個個의 壬辰字에서 同一한 글자에 대하여, 일마나 많은 活字를 鑄成하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제 이들을 鑄造한 數量이 많은 글자부터, 적은 數字로 차례로 적어본다. 이는 壬辰字에서의 標準字(代表字)<sup>(20)</sup> 選定時의 基準에 는 도움이 되겠지만, 國漢文混用이 아닌 漢字만의 使用에서 그 頻度를 알아보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인이기에 記錄하여 두는 것이다.

(20) 이 “標準字” 혹은 “代表字”라는 概念은 여러가지의 活字가 獨用 혹은 混用되었을 때에, 몇 개의 活字 字體間 比較하여도 特定活字를 바로 分別할 수 있는 特徵을 바로 나타내는 活字를 말한다. 이 用語는 여러번 使用한 일이 있으나 아직 公認되지 못하고 있다.

300字	之	108字	所
250字	而	107字	文, 爲, 本, 國
174字	年	105字	何, 相, 於
173字	然	104字	侍, 諸, 時
170字	以, 也	103字	更
160字	天, 不	102字	從, 別, 又, 終
150字	一	100字	中, 前, 與
149字	曰	99字	盡
147字	大	98字	今, 四, 知
143字	人, 其	97字	或, 雖
137字	至, 無	96字	千
136字	此	95字	古, 道
135字	則	94字	心, 官, 後, 得
132字	下	93字	使, 軍, 禮
131字	行	92字	通, 十, 先
130字	上, 二, 三	91字	語, 法
127字	可, 是	90字	見, 同, 百, 生, 世
125字	君, 有, 公	89字	五, 莫
124字	名, 事	88字	欲, 歲, 哉
123字	日, 亦, 子	87字	仁, 治, 七
122字	于	86字	聖, 水
120字	王, 地, 若, 用, 左	85字	在, 必, 詩, 焉
119字	矣	84字	說, 白, 太, 平, 爾, 入
118字	臣, 月	83字	惟, 約
116字	自	82字	父, 朝, 服, 能, 萬, 物, 九
114字	如, 乎	81字	去, 求, 及, 州
113字	故	80字	便, 城, 始, 成
112字	言	79字	位, 六, 謂, 宗, 遣, 立, 書
111字	者, 夫	78字	變, 辭
110字	乃	77字	意, 木, 出, 非
109字	旣	76字	化, 陰, 勿

75字 作, 命, 訓, 甚  
 74字 令, 信, 親, 宮, 明, 八  
 73字 傳, 耳, 取, 來  
 72字 卽, 善, 受, 極, 氣, 春,  
       山, 小  
 71字 伏, 秋  
 70字 里, 右, 敢, 陽, 南, 母,  
       衆  
 69字 長, 西, 豈  
 68字 守, 安, 河, 江, 數, 皆, 難

67字 義, 會, 過  
 66字 歸  
 65字 好, 觀, 后, 方, 近, 刑, 賢  
 64字 嘗  
 63字 女, 舉, 予, 重, 凡.  
 62字 身, 束, 處  
 61字 忠, 定, 己  
 60字 全, 但, 聲, 司, 流, 每,  
       未, 兵, 每, 光  
 59字 (以下省略)

위의 같은 統計에 따라서 壬辰字의 標準字를 選定하는데 있어서는, 生生字에 있어서의 59字 以上을 擇하여야 함과<sup>(21)</sup>는 달리, 100字 以上の 글자를 限定하는 것이 適當함을 짐작할 수 있다.

## VII. 避諱의 調査

이 《新訂字彙》에 있어서는, 그 보다 後에 이루어진 《生生字譜》<sup>(22)</sup>와는 달리 避諱가 考慮되어 있지 않는 것 같다.

高麗에 있어서도 그러하였지만, 朝鮮朝에 있어서도 避諱의 경향은 特別 嚴格하였다. 이제 朝鮮朝에서 行하여진 避諱<sup>(23)</sup>과 이 《新訂字彙》에서 取扱된 字를 알아 보면 아래와 같다.

- (先系 遺尊) 穆祖 安社 ※ 두字 모두 있으며, 社에는 點(,)을 찍음.  
 " 翼祖 行里 ※ 두字 모두 있음.  
 " 度祖 椿, 善來(初諱) ※ 諱 있음.  
 " 桓祖 子春, (字도 같음) ※ 諱 두字 모두 있음.  
 1代 太祖 且, 成桂(初諱) 仲潔(字) ※ 諱 없음.  
 2代 定宗 暉, 芳果(初諱) 光遠(字) ※ 諱 없음.  
 3代 太宗 芳遠, 遺德(字) ※ 諱 두字 모두 있음.  
 4代 世宗 禔, 元正(字) ※ 諱 없음.

(21) 尹海泰, 前掲論文, pp. 42~43.

(22) 上掲論文, pp. 41.

(23) 이 避諱는 白麟, 古書目錄規則 (서울: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1967)의 附表에 따랐다.

- 5代 文宗 珣, 輝之(字) ※ 諱 없음.  
 6代 端宗 弘暉 ※ 諱 平字 모두 있음.  
 7代 世祖 瑑, 粹之(字) ※ 諱 없음.  
 追尊 德宗 暉, 崇(初諱) 原明(字) ※ 諱 없음.  
 8代 睿宗 晁, 明照(字) 平甫(初字) ※ 諱 없음.  
 9代 成宗 璉 ※ 없음.  
 10代 燕山君 憐 ※ 없음.  
 11代 中宗 愷, 樂天(字) ※ 諱 있음.  
 12代 仁宗 峒 ※ 없음.  
 13代 明宗 昶, 對陽(字) ※ 諱 없음.  
 14代 宣祖 昞, 鈞(初諱) ※ 諱 없음.  
 15代 光海君 瑗 ※ 없음.  
 追尊 元宗 珣 ※ 없음.  
 16代 仁祖 侏, 和伯(字) ※ 諱 없음.  
 17代 孝宗 湔, 靜淵(字) ※ 諱 없음.  
 18代 顯宗 稠, 景直(字) ※ 諱 없음.  
 19代 肅宗 焯, 明普(字) ※ 諱 있음.  
 20代 景宗 昀, 輝瑞(字) ※ 諱 있음.  
 21代 英祖 吟, 光叔(字) ※ 諱 없음.  
 追尊 眞宗 緯, 聖敬(字) ※ 諱 없음.  
 " 莊祖 愷, 允寬(字) ※ 諱 없음.  
 22代 正祖 祘, 亨運(字) ※ 諱 없음.

이로서 미루어 알 수 있드시, 諱에 해당하는 字들은 없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둔 것을 알 수가 있다.

### VIII. 結 言

以上으로서 壬辰字 鑄造에 관한 資料인 《新訂字藪》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 字譜가 여러가지 文獻에 記錄된 바를 살펴 보았으며, 이 책이 壬辰字에 관한 重要的한 史料임에 불구하고 先學들이 利用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계속하여 이 책의 體裁와 內容을 책의 차례대로 紹介하였고, 卷末의 重要的한 事項을 移記하면서 引用하였다. 이 卷末의 監董 등의 官銜名은 實地로

壬辰字를 鑄造하는데 참여한 사람을 알려주는 資料이며, 徐命膺의 <重鑄四書輯釋叙>는 事實上的 壬辰字의 <鑄字事實>이라는 것과 또 이 <叙>로 부터 實錄에 나타난 가까운 壬辰字의 鑄造日字를 얻어 내었음을 밝혔다.

各部에서의 鑄造한 字數와 活字數의 統計는 다른 字藪·字譜와의 比較研究에 도움이 됨으로 繁雜하였지만 收錄하였고, 代表字(標準字) 選定의 基準이 되는 字의 多鑄順 차이를 살펴 보았다. 300字나 많은 “之”, 250字 많은 “而”字 부터 1字만 많은 字도 있으나 壬辰字의 標準字를 選定하기 위하여는 100字 以上을 만든 字 속에지만 골라도 될 것을 비쳤다.

《生生字譜》와는 달리 避諱의 現象은 없었음도 아울러 밝혔다.

이 研究 結果로 우리나라 活字印刷史上 重要한 史料의 한가지가 더하여졌으며, 그 중에서도 壬辰字에 대한 좀 더 分明한 鑄造日字·關係高 등이 알려지고 생각하며, 막연하기 알려졌던 壬辰字의 總鑄造字數나 個個 字의 鑄造字數에 관한 資料가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이 《新訂字藪》뿐만 아니라 아직도 발표하지 아니한 奎章閣의 여러 字譜 등의 綜合的인 研究가 머지않아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다른 活字에 대한 보다 充分한 資料가 더하여질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研究를 위하여 資料의 閱覽과 一部分의 複寫나 謄寫하여 주신 奎章閣 當局과 指導하여 주신 恩師 孫寶基博士에게 삼가 感謝를 올린다.

## 參 考 文 獻

註로서 代身함. (1976. 11. 21. 稿了)

이 論文은 慶北圖書館學會 第三回 學術研究發表會(1976. 11. 28. 於大邱市立圖書館會議室)에서 發表하였음.



A Study of the *Sin-Jeong Jasu*

Yun, Byeong-Tae\*

(Abstract)

This is a bibliographical study of the *Sinjeong Jasu*(新訂字蔽)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Imjin type*(壬辰字).

The *Sinjeong Jasu* was compiled by Seo Myeong-Eung at the period of AD 1772. The Gyujiang-gag(奎章閣: The Royal Library Collection)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as been kept one volume of original manuscript of the *Sinjeong Jasu*.

This book is a record of the *Imjin type*. The compilation of this record is like the character dictionary. The number of the cast types are recorded in this volume by each character, also recorded the total numbers of types which stored in the seven stock cases.

At the end of the *Sinjeong Jasu*, there are supplementary informations about *Imjin types* which described the historical facts on the casting of *Imjin type* and listed the names of persons who worked for the casting *Imjin type*. This figure was very important materials which is to research into the casting of *Imjin type*, but most scholars who had written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movable type printing are neglected.

The *Sinjeong Jasu* was listed in the several bibliographies, but its contents were not used as a historical sources of the study on the *Imjin type*.

As the followings the record of the *Sinjeong Jasu*, the casting

---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Gyeongbuk National University.

of *Imjin type* was finished off at July, 1772. The beginning of casting *Imjin type* was March of the same year, which recorded in *Sillog*(實錄) uncertainly. The beginning month of the casting was traced from the postface written by Seo Myeong-Eng in the *Sinjeong jasu*.

The total number of the cast *Imjin type* was 142,767 type fonts including 102,326 large types and 40,441 small types.

In this study, (1) the format and contents of the *Sinjeong Jasu* are described, (2) the formation of the book was studied, (3) the number of cast types are listed according to the strokes and stock cases, (4) the order of many cast characters a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order, the selecting of standard (representative) characters of *Imjin type* should be chosen between the characters which cast over 100 type fonts.

The last study is (5) the searching of the phenomenon of avoiding of Kings' names. In this last searching, there are no phenomenon of avoiding of Kings' names are found.

The effect of this study will be appeared at the end of the compilation of the study of other many records of types. These studies will clear the history of Korean movable type printing.